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# 기준금리 동결 및 양적 금융완화정책 억제 시사

□ 미국과 일본은 경기둔화조짐이 나타나면서 양적 금융완화정책의 도입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, 유로지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억제하겠다고 밝힘.

- 미국과 일본은 최근 대규모의 불량자산매입, 국채 매입, 기준금리 완화 등 양적 금융완화정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.
  -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(FOMC)는 경기회복 둔화세가 나타남에 따라 추가적인 경비부양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, 11월의 FOMC회의에서는 국채매입 재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.
  - 일본은행은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둔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0.05%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으며, 국채 및 기타 불량금융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5조 엔(600억 달러)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함.
-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지역은 양적 금융완화 정책을 억제할 의사를 시사함.
  - 유럽중앙은행은 1.0% 수준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으며, 불량국채매입을 중지하는 한편, 금융위기 최고조시 설정한 긴급 유동성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만료시키기로 함.

□ 유로지역의 기준금리 동결, 양적 금융완화정책 억제에 따라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어 대외수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.

- 유로지역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 달러대비 유로화는 지난 8개월 내에 최고 수준인 \$1.40까지 상승하는 강세를 보였고 지난 6월의 연중 최저 수준인 \$1.18에 비해서는 15%이상 평가절상 됨.
- 유로화 강세는 세입을 확대하고 지출을 삭감해야 되는 주변부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일랜드와 같은 무역의존 국가의 경우에는 민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.
  - IHS Global Insight는 주변부 국가들이 버틸 수 있는 유로화의 한계점은 1.40\$의 수준이라고 분석함.
-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은 경제와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 개입은 없을 것이며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평가지표로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힘.

(ECB 10/7, WSJ 10/8)